

교토 미식 산책

— 골목 따라 맛따라 —

KYOTO
TASTE WALKS

천천히 걷고
맛보고,
교토를
더 좋아하게 되는
여행

음식이
이어주는
교토의
오늘

“교토는,
맛으로 더 깊이 여행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골목 따라, 맛 따라

일본, 내 동선대로 · 미식 산책 별책

PROLOGUE

관광지 사이에, 동네의 한 끼

사찰 이름을 하나 더 외우기보다 점심과 과자 사이의 거리를 읽는다. 출입할 수 있는 거리만 천천히.

교토의 맛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긴 코스 요리와 유명 찻집의 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데마치의 점심 상자, 그릇에 담긴 단맛, 기타노의 두부와 아와모치를 서로 다른 날에 나누면 식사가 동네를 이해하는 길이 된다.

데마치의 반나절은 생활 상점가와 숲 사이를 잇는다. 점심이 예약되어 있다면 숲을 짧게 보고 돌아오고, 디저트가 가장 기대된다면 식사량부터 조절한다. 기타노에서는 두부 식사의 짧은 제공 시간을 중심에 둔다. 가게가 문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밥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이 말하는 한 골목 더는 사적인 길 안쪽으로 들어가자는 뜻이 아니다. 기온 밖의 거리에도 생활과 일터가 있다.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고, 공개된 공간과 식사를 통해 다른 교토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다.

가미시치켄은 공개 거리만 걷는다. 게이코·마이코를 기다리거나 따라가거나 무단 촬영하는 활동을 넣지 않는다.

표지는 도시의 분위기를 표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 실제 골목·시설·전망을 재현한 사진이나 지도가 아닙니다.

CONTENTS

이 별책의 읽는 순서

이 도시를 작게 읽기	2
데마치 맛집 산책	4
기타노 두부와 아와모치	6
한 끼를 고르는 네 곳	8
한 골목 더 걷는 세 곳	12
기다림·예산·동행자	15
식당에서 보여줄 일본어	16
출처와 확인 범위	18
내 반나절 기록	20

먼저 정할 것	선택
제철 반찬·숯	데마치, 점심 종류와 예약 조건부터.
두부·문전 과자	기타노, 차야 달력과 식사 마감을 먼저 확인.
관광객 없는 곳이 목적	이 코스는 맞지 않을 수 있음. 유명 신사·인기 가게도 포함.

‘숨은 곳’은 관광객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대형 명소 위주의 일정에서 한 골목 더 들어가는 선택이다. 이미 유명한 식당도 포함한다. 실제 방문·시식 기록이 아닌 공개 자료 기반의 편집안이며, 식당 접수·메뉴·휴무는 여행일에 확인한다.

WALK 01

데마치 맛집 산책

오반자이와 안미쓰, 숲길 하나

데마치의 점심은 상자 안의 작은 반찬부터 시작한다. 그다음 단맛을 먹을지 숲길을 걸을지 고른다. 반드시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하는 코스가 아니라, 식사 뒤에 무엇이 남아야 좋은 하루인지 생각하는 반나절이다.

상점가에서는 여행 기념품보다 주민이 사는 물건의 구성을 먼저 보게 된다. 가게 하나를 사진처럼 떼어내기보다 점심을 먹고 사람들이 오가는 공개 통로를 따라 걷는다. 이세한에 앓을 계획이 있다면 다른 간식은 가볍게 남겨두자.

1 데마치 마스가타 상점가

상점가 한 구간 · 머무는 시간 예시 30분
로로로 예약이 있다면 입장시각에 맞춰 종료.

2 데마치 로로로

정해진 종류의 점심 · 머무는 시간 예시 70분
예약 종류·식수·도착시간 확인.

3 차방 이세한

안미쓰·차실 선택 · 머무는 시간 예시 45분
영업·대기 확인. 숲을 우선하면 생략.

4 다다스노모리

공개 숲길 선택 · 머무는 시간 예시 45분
기상과 남은 시간을 보고 짧게 왕복.

이동시간·대기는 포함하지 않았다. 지도와 현장 안내로 별도 확인한다.
한 식사 + 단맛 또는 숲. 셋 모두 유지할 때는 이동·대기 여유 추가.

WALK 01 · PLAN B

그날의 속도로 바꾸기

로로로를 예약할 때

점심 상자와 미니 가이세키는 같은 이름의 좌석 예약이 아니다. 무엇을 먹을지, 그 메뉴가 사전예약 대상인지, 도착할 인원이 몇 명인지 함께 전달한다. 특정 반찬은 계절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는 사진이 아니라 재료명으로 말한다.

예약을 못 했다면 같은 날 조금 늦게 가면 될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점심 수량이 한정되는 가게다. 현장 안내가 어렵다면 식당을 다른 곳으로 바꾸고 상점가·숲이라는 큰 구조만 유지한다.

안미쓰 뒤 숲은 선택이다

차실에서 충분히 쉬었다면 숲길을 짧게 걸어도 되고 바로 돌아가도 된다. 시모가모의 공개 참배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현장 안내를 보고, 나무 아래를 먹는 장소로 사용하지 않는다.

덥거나 비바람이 불면 숲을 더하는 대신 실내 체류로 끝낸다. 원고의 체류시간은 안전한 날씨의 자기 계획값이지, 기상에 상관없이 완주하라는 시간이 아니다.

비가 오면

상점가와 점심·차실 중심. 강풍·경보 때 숲은 취소.

걷기를 줄이면

걷기가 부담스러우면 차실을 남기고 숲 왕복을 줄인다.

확인 근거 [K03] · [K04] · [K07] · [K08]

WALK 02

기타노 두부와 아와모치

가미시치켄까지 작은 미식 산책

기타노에서는 점심의 짧은 제공 시간이 하루의 중심이 된다. 두부를 먹고 과자를 고른 다음 가미시치켄의 공개 거리까지 짧게 걷는다. 유명한 신사의 규모보다 두 끼 사이에서 떨어낼 것을 먼저 생각해보자.

두부 요리는 먹고 싶은 이유가 있을 때 넣는다. 담백할 것이라는 이미지로 채식이나 알레르기 조건까지 해결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사와야의 과자는 지금 먹을 단맛으로 계획하고, 포장은 매장이 안내하는 기한을 확인한다.

1 도요우케 차야

차야의 점심 · 머무는 시간 예시 65분

목·금 및 예외 달력, 음식 L.O. 확인.

2 아와모치도코로 사와야

아와모치·휴식 · 머무는 시간 예시 35분

당일 운영과 주문 단위 확인.

3 가미시치켄의 공개 거리

공개 거리 산책 · 머무는 시간 예시 40분

사유지와 인물 촬영을 피한다.

이동시간·대기는 포함하지 않았다. 지도와 현장 안내로 별도 확인한다.

차야가 쉬는 날에는 이 코스를 통째로 다른 날로 옮기거나 식사만 교체. 과자는 필수가 아님.